

薛濤의 「十離詩」 속 自我認識과 시 짓기 전략

박혜경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十離詩」에 나타난 薛濤의 자아 인식을 살펴보고 이 시의 창작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 짓기 전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설도의 문인으로서의 자아 인식의 확립에 영향을 준 배경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十離詩」속 자아 형상을 분석하여 현실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 창작 상의 전략을 귀납하였다. 그녀는 시 짓기를 통하여 자아를 선명하게 인식하였으며 전략적으로 이를 형상화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薛濤의 자아 인식과 文士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는 그녀가 소속된 劍南西川藩鎮의 문화와 그 안에서의 창작활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薛濤, 「十離詩」, 자아 인식(self-awareness, self-consciousness), 자아 정체성, 은유 구조

I. 서론

薛濤를 한마디로 요약해야 한다면 ‘唐代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여성’이 가장 대표성이 있는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은 오랜 시간의 풍화 속에서 서로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다. 과거 훌륭한 예술 작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전해지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물론이고 그 존재 사실조차 확신하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의 시작은 ‘唐代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여성 薛濤’에서 출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년 전 남성 중심의 봉건사회 속에서 薛濤는 어떻게 시

를 짓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무엇보다 먼저 薛濤의 ‘자아’에 주목하였다. ‘시 짓기’란 중국의 전통적 詩觀에 따르면 ‘마음속 생각과 감정, 지향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詩言志]’이며 이 생각과 감정, 지향을 통합하는 주체가 바로 ‘자아’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薛濤의 「十離詩」를 통하여 그녀가 어떻게 자아와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시의 창작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은유하고 형상화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十離詩」에 나타난 자아 인식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그녀의 삶과 환경을 통하여 귀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왜 「十離詩」가 이 글의 연구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창작배경을 서술하겠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十離詩」속 자아 형상을 분석하여 薛濤의 자아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시 짓기 전략을 분석해보겠다. 나아가 「十離詩」를 짓던 시절 薛濤가 營妓로서 활동하였던 劍南西川藩鎮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薛濤가 文士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을 서술하겠다. 「十離詩」분석은 인지언어학의 은유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薛濤의 ‘시 짓기 전략’이라는 용어와 아이디어는 박무영의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¹⁾ 및 이경하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²⁾을 참고하였다.

II. 「十離詩」의 창작배경

薛濤는 建中 2년(781)에 출생하여 大和 6년(832)에 사망하였다.³⁾ 수도

-
- 1)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화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2)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3) 薛濤의 생졸 시기는 그녀의 작품과 관련된 인물들의 관직명이나 이력 등을 통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薛濤의 시와 생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출판한 서적으로는 중국학자 張篷舟의 『薛濤詩箋』(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3)이 있다. 2012년 張正則·季國平·張雅가 張篷舟의 箋을 수정하여 수정판을 다시 출판하였다. 張篷舟는 薛濤의 생졸 시기를

長安의 하급 관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蜀의 成都로 이주하였다. 8-9세에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16세에 樂籍에 이름을 올렸다. 樂籍에서 벗어난 이후로는 浣花溪에서 은퇴 후의 삶을 살았다.⁴⁾ 과거 薛濤의 시 500여 수를 수록한 다섯 권으로 된 『錦江集』이 있었다고 하나,⁵⁾ 『全唐詩』가 편찬된 清代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全唐詩』 제803권에 수록된 『薛濤集』은 『萬首唐人絕句』 등의 選本들에서 수집한 것이다. 『全唐詩』 제803권에는 薛濤의 시 78題 85수가 수록되어 있다. 薛濤 시의 절반 이상은 酬·和·贈·答·寄를 위한 시이며 그 외에는 詠物詩와 自然詩, 浣花溪의 생활 속 소회를 그린 抒情詩 등으로 다양하다.

「十離詩」는 『全唐詩』 제803권에 수록된 「犬離主」·「筆離手」·「馬離廐」·「鸚鵡離籠」·「燕離巢」·「珠離掌」·「魚離池」·「鷹離鞞」·「竹離亭」

770~832년으로 추정하였으나 수정판에서는 이것을 오류로 판단하고 劉天文이 주장한 781년 설을 지지하였다. 劉天文은 薛濤가 781년에 출생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필자 역시 이것이 薛濤 시의 창작배경 등을 보았을 때 더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따랐다. 劉天文의 주장은 주12)에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 4) 『全唐詩·薛濤傳』에서는 薛濤의 생몰 시기를 770~832년으로 기록하였고 張篷舟 역시 이 770년 출생설을 주장하였다. 薛濤의 생애에 대해서는 『全唐詩·薛濤傳』를 참고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薛濤傳들은 대부분 『全唐詩』의 서술과 대동소이하다. 『全唐詩·薛濤傳』, “薛濤字洪度, 生於大曆五年, 卒於大和六年, 享年六十三歲. 原籍長安, 幼隨父居成都, 八九歲能詩, 十六歲入樂籍, 脫樂籍後終身未嫁. 薛濤正式集子叫錦江集, 共五卷, 詩五百餘首, 惜未流下來. 後世各家所本的明本薛濤詩一卷, 是從萬首唐人絕句等選本拼湊起來的”. 본고에서 인용한 고적들의 원문은 國學大師(guoxuedashi.com)에서 제공하는 文淵閣『欽定四庫全書』를 참고하였으며 가능한 함께 게시된 影印本이나 圖文對照本과 대조하였다.
- 5) 『郡齋讀書志』에 “薛濤錦江集五卷.”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이 문집은 전해지지 않는다. 南宋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는 “薛濤集一卷”이라는 기록만이 남아있고 다른 설명은 없으며 이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5권으로 된 설도의 개인 문집은 이미 남송 시기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元代 辛文房的 『唐才子傳』에 “薛濤의 『錦江集』 5권이 현재까지 전해진다(薛濤錦江集五卷, 今傳).”라는 말은 믿기 어렵다. 明 萬曆 30년(1602) 成都 洗墨池 楊慎의 집에 『薛濤詩』 1권을 판각한 서적이 있었다고 한다. 曹學佺의 『蜀中詩話』에 따르면 그가 본 楊慎의 집의 『薛濤詩』 필사본을 살펴보니 그것이 洪邁의 『萬首唐人絕句』와 같았다는 언급이 있다. 張篷舟의 판단에 따르면 明·清代 시중의 薛濤의 시집은 明刻 『薛濤集』 1권과 『全唐詩』에 수록된 시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다. 張篷舟의 『薛濤詩箋』은 총 80題 92首의 薛濤 시를 수록하고 있다. 張篷舟, 앞의 책, 2012, 86-87쪽.

· 「鏡離臺」 10수를 통칭하는 대제목이다. 한때 詩格이 비루하다며 薛濤의 작품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나 晚唐 사람 韋莊의 『又玄集』에 薛濤의 작품이 분명한 「罰赴邊有懷上韋相公」과 「犬離主」가 수록되어 있음이 발견되면서 薛濤의 작품인 것이 확실시되었다.⁶⁾

「罰赴邊有懷上韋相公」은 薛濤의 출생 시기 및 樂籍에 소속된 시기와 변방으로 쫓겨난 시기 등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목 속 ‘韋相公’이라 지칭된 인물은 당시 劍南西川 節度使였던 韋臯이다. “죄를 짓고 변경으로 가며 느끼는 바가 있어 위상공께 올리나이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추방 명령이 이 시의 창작 동기가 되었으며 「十離詩」의 동기도 이와 같다. 唐代 전국 道の 지방 관부나 州縣의 軍鎮에서는 조정의 教坊과 같은 음악기구를 설치하고 소속 樂妓를 두어 기관 내 의례나 연회에서 시중을 들거나 연주를 하게 하였으며 樂妓들은 소속 기관의 관리를 받았다. 薛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당시 절도사였던 韋臯였기 때문에 薛濤는 자신을 변호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를 지어 韋臯에게 올린 것이다.

이 시는 제목 속 ‘韋相公’이라는 관직명으로 미루어 796년에서 800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韋臯는 貞元 元年(785) 劍南西川 節度使로 부임해왔고,⁷⁾ “남조를 굴복시키고 토번을 쫓아낸(服南詔, 催吐蕃)” 공으로 貞元 12년(796) 同中書門下平章事 관직이 더해져 ‘韋相國’ 또는 ‘韋相公’으로 불리기 시작했다.⁸⁾ 이후 貞元 17년(801)에는 中書令 직이 더해져 ‘韋中令’ 또는 ‘韋令公’으로 불리기 시작했다.⁹⁾ 따라서 「罰赴邊有懷上韋相公」은 韋臯가 中書令 직함을 받기 전 796년에서 늦어도 801년 초 사이 4-5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 「犬離主」의 첫 구인 ‘붉은 문안에서 길

6) 『唐人萬首絕句』에서는 「十離詩」가 薛書記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1958년 逸失 된 것으로 알았던 韋莊의 『又玄集』이 일본에서 발견되면서 이 작품이 薛濤의 것임이 증명되었다. 『又玄集』은 薛濤의 시가 수록된 선집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서적으로 薛濤의 것이 확실한 「罰赴邊有懷上韋相公」 2수와 「犬離主」 두 수가 수록되어 있었다. 張篷舟, 앞의 책, 2012, 74쪽.

7) 『舊唐書』, 卷140, 列傳第90, 「韋臯」, “貞元元年, 拜檢校戶部尚書, 兼成都尹·御史大夫·劍南西川節度使, 代張延賞.”

8) 『舊唐書』, 卷140, 列傳第90, 「韋臯」, “十二年二月, 就加同中書門下平章事.”

9) 『舊唐書』, 卷140, 列傳第90, 「韋臯」, “十七年……臯以功加檢校司徒, 兼中書令, 封南康郡王.”

들여진 지 사오년(馴擾朱門四五年)'은 薛濤가 西川藩鎮 關雎 樂籍에 소속된 지 4-5년이 지났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劉天文은 이를 근거로 薛濤가 貞元 12년에 樂籍에 이름을 올리고 韋臯가 中書丞 직함을 받기 직전 해인 貞元 16년(800)에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¹⁰⁾ 「十離詩」역시 처벌을 거두어주기를 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何光遠은 後蜀 사람으로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鑒戒錄』, 제10권, 「蜀才婦」에서는 薛濤와 「十離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薛濤는 용모와 자태가 아름답고 시를 짓는 재주도 매우 뛰어났다. 해학을 주고받을 때도 즉시 응대하였다. 무릇 營妓가 校書의 호칭을 받은 일은 없는데 韋臯가 成都의 절도사였을 때 교서직을 내리도록 추천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薛濤를 女校書라) 부르게 된 이유이다.……薛濤는 모든 지방 장관들의 사랑을 받아 서로 찬고 하기도 하고 수레를 타고 드나들기도 하였다. 薛濤의 시가 사방으로 전해지고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 명을 받은 사신들의 수레가 측지역에 이를 때마다 만나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다. 그러나 薛濤는 성품이 거침없어 보내온 금이나 비단을 종종 상납하였으니 韋臯가 이를 알고 노하여 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薛濤가 「五離詩」¹¹⁾를 바쳤는데 그 감정과 뜻에 감동하여 곧 다시 총애를 받아 (막부로) 부름을 받았으니 당시 귀하게 여겨짐이 이 정도였다.¹²⁾

10) 劉天文은 이상의 논리에 따라 薛濤가 성년식[及笄]을 올린 만 16세에 樂籍에 소속되었다는 역대 설을 근거로 781년에 薛濤가 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張篷舟, 앞의 책, 2012, 216쪽) 다만 薛濤가 처벌을 받은 시기가 韋臯가 韋相公으로 불리던 796-800년 사이는 분명하나 韋令公으로 불리기 직전 해인 800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만약 796년에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薛濤의 출생 시기도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11) 何光遠이 이 글의 뒷부분에서 인용한 작품도 「犬離主」·「魚離池」·「鸚鵡離籠」·「竹離亭」·「珠離掌」 다섯 수뿐이다.

12) 『欽定四庫全書』, 子部12, 小說家類1, “薛濤者, 容姿既麗, 才調尤佳, 言謔之間, 立有酬對. 大凡營妓, 比無校書之稱, 自韋南康鎮成都日, 欲奏之而罷, 至今呼之故. ……濤每承連帥寵念, 或相唱和, 出入車輿, 詩達四方, 中朝一(名馳上國). 應銜命使車每屆蜀, 求見濤者甚衆, 而濤性亦狂逸, 所有見遺金帛(所遺金帛), 往往上納, 韋公既知且怒, 於是不許從官, 濤獻五離詩(濤作十離詩以獻), 情感人, 遂復寵召, 當時見重如此.” 원문 중 괄호 안의 것은 張篷舟의 『薛濤詩箋』

이때 그녀의 나이는 갓 스물이었으며 악적에 소속되어 劍南西川藩鎮을 경험한 지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 그녀는 樂妓의 신분으로 韋臯에게 총애를 받았으며, 長安을 비롯하여 각지에 이름이 알려졌다.¹³⁾ 이 시기는 薛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기간이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韋臯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十離詩」를 짓게 된 것이다. 「十離詩」를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던 薛濤는 자아를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상대를 심미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감동시켜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十離詩」는 薛濤의 자아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에 수록된 『知不足齋』本과 淸鈔本을 근거로 한 것이다. 張篷舟는 이 두 책에서 모두 『十離詩』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에 예시로 든 것이 다섯 수뿐이어서 이것이 이후 「五離詩」 설의 원인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張篷舟, 앞의 책, 183쪽) 본래 薛濤의 시집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수록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南宋 洪邁가 편찬한 『萬首唐人絕句』이다. 明 萬曆 30년(1602) 成都 洗墨池 楊慎의 집에 『薛濤詩』 1권을 판각한 서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曹學佺의 『蜀中詩話』에 따르면 이 필사본에는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뿐이었고 이 시들은 모두 洪邁의 『萬首唐人絕句』에도 실려있던 작품들이었다고 한다. 『萬首唐人絕句』 제66권에는 「절동의 원상공께 올림(十離詩上 浙東元相公)」이라는 대제목 아래 「犬離主」·「筆離手」·「馬離廐」·「鸚鵡離籠」·「燕離窠」·「珠離掌」·「魚離池」·「鷹離主」·「竹離亭」·「鏡離臺」 열 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작자는 ‘薛書記’로 기록되어 있다. 曹學佺은 그가 본 『薛濤詩』 1권에 수록된 시들이 모두 『萬首唐人絕句』에 수록된 작품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薛書記의 작품으로 수록된 것을 말하는 것 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정리하자면 『鑒戒錄』은 판본에 따라 「五離詩」라고 한 것도 「十離詩」라고 한 것도 있으나 예시로 든 작품은 모두 다섯 수뿐이다. 그 외 가장 이른 시기의 서적은 『萬首唐人絕句』인데 여기에는 「十離詩」가 수록되어 있지만 작자는 ‘薛書記’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창작자의 문제는 『又玄集』의 발견으로 薛濤의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 13) 唐 中和 4년(884)에 孫棨가 저술한 『北里志』의 序 중 “(북리의 기녀들과) 소문이 자자했던 蜀의 기녀 薛濤의 재주와 언변을 서로 비교한다면 사람들이 (薛濤의 재능에 대하여) 과장한 것이 분명하다. 북리의 몇몇 기녀들을 보았다면 薛濤는 멀리서 자신의 품덕을 부끄러워할 것이다(比常聞蜀妓薛濤之才辯, 必謂人過言, 及睹北里二三子之徒, 則薛濤遠有慚德矣).”라는 기록을 보았을 때 薛濤는 생존 당시 뿐 아니라 사후에도 장안의 기녀들이 모여있던 平康里에서 뿐 아니라 당시 사인들 사이에서 재주와 언변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十離詩」 속 자아 인식

‘자아 인식’이란 발달 심리학 용어 중 하나로서 자신의 존재를 외부 환경이나 타자와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해 가면서 자아의 개념을 형성해 나가게 되며 타인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넓혀갈 수 있다. 시인은 언어를 질료로 내면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구체화한다. 「十離詩」 속에 나타난 薛濤의 자아 인식은 樂籍에 입적한 이후 경험을 통하여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 「十離詩」의 은유 구조와 그에 반영된 현실 인식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마크 존슨(Mark Johnson)은 “개념체계는 우리의 일상 활동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 개념체계는 대부분 은유적이다.”¹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것이다. 「十離詩」 속 韋臯와 薛濤를 은유하는 형상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라는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은유 구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十離’의 ‘十’은 열 종류의 동물·식물·사물을 뜻하며 ‘離’는 ‘떠나다’·‘떼어놓다’라는 ‘공간적 분리’를 의미한다. 「十離詩」는 薛濤가 韋臯에 의해 劍南西川 막부가 있던 成都에서 四川의 변경지역 松州으로 쫓겨난 후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고 스스로를 변호한 시이다.¹⁵⁾ 창작 동기의 특성상 「犬離主」·「筆離手」·「馬離廐」·「鸚鵡離籠」·「燕離巢」·「珠離掌」·「魚離池」·「鷹離韝」·「竹離亭」·「鏡離臺」 10수에서 薛濤는 자신을 개·붓·말·앵무·제비·구슬·물고기·매·대나무·거울로 은유한다. 이로 인하여 薛濤와 관계되는 韋臯와 그녀가 벌을 받게 된 일도 모두 이

14)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저,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도서출판 박이정, 2009, 24-25쪽.

15) 「罰赴邊有懷上韋相公」 2수의 제2수에 “오히려 엄히 첩을 꾸짖으시니 감히 송주로 향할 수 없네(却教嚴譴妾, 不敢向松州)”라는 시구로 미루어 제목에서 말하는 변경은 松州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은유의 구조 안으로 끌려 들어온다. 薛濤를 은유하는 형상들이 떠난 것[離]은 주인·王羲之의 손·마차·새장·둥지·손바닥·연못·사냥 토시·정자·경대로 사랑을 받던 시절 그녀가 속해있던 공간이다.¹⁶⁾ 그리고 그 공간이 은유하는 것은 薛濤가 있던 劍南西川 藩鎮이며, 사실상 이 공간의 주인인 韋臯이다. 薛濤는 그 공간에 불러왔다가 다시 그 공간으로부터 쫓겨나는 피동적인 존재이다. 당시 薛濤는 변진에 소속된 營妓로서 韋臯와는 주종 관계에 있었다. 「十離詩」는 모두 7言 4句의 絶句이며 대체로 1~2구는 薛濤 자신을 은유하는 동·식물과 사물에 대하여 묘사하고 3구는 자신이 범한 잘못을, 4구는 죄로 인한 벌을 묘사한다. 아래 시는 「十離詩」의 첫 번째 시인 「犬離主」인데 나머지 9수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馴擾朱門四五年, 붉은 문 안에서 길들여진 지 사오년
毛香足淨主人憐. 향긋한 털, 깨끗한 발로 주인의 사랑을 받았네.
無端咬著親知客, 함부로 (주인과) 친한 손님을 물어서
不得紅絲絛上眠. 붉은 비단 담요에서 잘 수 없게 되었네.

薛濤는 1-2구에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던 아름다운 개를 묘사하고 3구에서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유를, 4구는 그로 인한 벌을 묘사하고 있다. 자신을 개로 은유하였기 때문에 주종의 권력 개념에서 韋臯는 주인이 되며, 손님을 문 행위는 죄가, 붉은 담요는 주인의 공간인 서천 막부를 의미하게 된다. 보이는 바와 같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단순하고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뚜렷하다. 또 개와 주인 사이의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권력 관계로 薛濤와 韋臯의 관계를 은유하여 薛濤가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복종한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감정적으로는 과거 자신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연민을 자극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개가 주인의 손님을 물어 쫓겨나게 되었다는 해학적인 구상 역시 자신의 잘못을 미숙함에서 온 실수로 변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하였다.

16) 붓이 들려 있던 손, 구슬이 쥐어져 있던 손바닥 등 타인의 인체 역시 공간화되어 있다.

「十離詩」는 위와 같은 薛濤와 韋臯 사이의 감정적 애착과 권력 관계에 대한 은유 구조의 반복이다. 그리고 이 은유 구조는 薛濤가 자신을 무엇에 은유하는가에 따라 일정한 맥락 속에서도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다. 달리 표현하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결합 될 수 있는 은유의 근거, 즉 둘 사이의 유사성과 연속성을 열 가지로 다양화하여 薛濤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현실 인식을 정서적·심미적 차원에서 상대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2. 薛濤의 자아에 대한 인식

薛濤는 「十離詩」를 지으면서 자신의 본질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薛濤는 자아의 인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원관념은 자신의 가치로서 부각시켜야 할 속속들이며 보조관념은 일상적이면서도 심미적인 동물과 식물, 사물이었다. 종속의 위치에 있는 자신은 주인에게 犬馬之勞를 다하는 충신이며 주인에 의해 ‘效用’이 발현되는 ‘도구’이다. 「十離詩」의 6종의 동물과 3종의 사물, 1종의 식물은 주인의 곁에서 주인을 위해 재능으로 헌신하는 반려이자 도구이다. 薛濤는 먼저 자신의 종속적 위치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타고난 자신의 우수성과 재능에 대한 확신을 선명하게 형상화한다.

- ① 월의 대와 선성의 털이 처음엔 흡족하여, 붉은 편지 위엔 꽃과 옥을 흩뿌렸네(越管宣毫始稱情, 紅箋紙上撒花瓊). 「筆離手」
- ② 눈처럼 흰 귀에 붉은 털에 옥빛 말굽이, 바람을 쫓아 해 뜨는 동쪽과 해 지는 서쪽까지 이르렀네(雪耳紅毛淺碧蹄, 追風曾到日東西). 「馬離廐」
- ③ 발톱은 칼끝처럼 예리하고 눈은 방울 같아서 평원 위 토끼를 사로잡아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네(爪利如鋒眼似鈴, 平原捉兔稱高情). 「鷹離鞴」
- ④ 농서에서 홀로 외로웠던 이 한 몸,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비단 자리 위에 앉았네(隴西獨自一孤身, 飛去飛來上錦茵). 「鸚鵡離籠」¹⁷⁾

뛰어난 자질의 붓·말·매는 주인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는 薛濤

의 높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의 표현이다. 사용자와 피사용자(도구)의 관계에서 피사용자(도구)의 위치에 있는 ‘사물·동물 은유’는 ‘사용자-주인’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이끌며 사용자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 시의 ‘사용자-주인’은 韋臯이며 薛濤를 은유하는 형상은 韋臯의 속성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붓은 薛濤의 시적 재능과 서예의 재능을 은유하며 이 붓의 사용자인 王羲之는 薛濤를 西川藩鎮의 樂籍에 入籍시킨 韋臯를 은유한다. 말과 매는 균형을 이끄는 최고의 사령관으로서의 韋臯의 속성 맞추어 종속적 위치에 있는 薛濤의 ‘탁월한 보조자로서의 재능’을 강조한 것이다. 앵무는 東漢 말 사람 禰衡이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로 자신을 은유한 「鸚鵡賦」의 전고에서 빌려온 것이다. 「鸚鵡賦」는 앵무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신령한 재주를 묘사하고 재주로 인하여 사람에게 사로잡혀 새장에 갇힌 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앵무의 비애와 한탄, 주인에 대한 헌신의 다짐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마지막에 앵무는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고 주인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비루하고 하찮은 목숨을 당신께 맡기고 누추하고 미천한 이 몸을 바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기꺼이 모자란 저의 말재주를 다 바치겠나이다. 그간 베풀어주신 큰 은혜를 민사오니,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랄 뿐이옵니다(苟竭心於所事, 敢背惠而忘初? 託輕鄙之微命, 委陋賤之薄軀. 期守死以報德, 甘盡辭以效愚. 恃隆恩於既往, 庶彌久而不渝).”¹⁸⁾

薛濤는 “성정이 지혜로워 말을 잘하고 재능이 총명하여 변화의 징후를 아는”¹⁹⁾ 앵무로 자신을 은유하고 이 앵무의 비애와 한탄으로 樂妓로서 자

17) 앵무는 杜甫의 「鸚鵡」·백거이의 「鸚鵡」·羅隱의 「鸚鵡」와 같이 보통 재능 있는 선비를 상징한다.

18) 蕭統 編, 李善 注, 『文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615쪽.

19) “性辯慧而能言兮, 才聰明以識機.”이 구절은 「鸚鵡賦」에서 앵무새의 외형과 재주를 묘사한 부분이다. 鸚鵡는 才士들의 비유로 쓰이지만 종종 薛濤와 같은 樂妓의 비유로도 쓰인다. 元稹은 「寄贈薛濤」에서 薛濤를 앵무로 비유하였고 白居易의 「鸚鵡」·劉禹錫의 「傷秦姝行」 등의 작품 속에서 鸚鵡가 妓女로 보이는 여성이나 여성의 비유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의 애환을 대신 표현하게 하여 동정을 호소한다. 더 나아가 「鸚鵡離籠」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주인에 대한 충심과 변함없는 총애에 대한 희망을 「鸚鵡賦」를 이용하여 함축하였다. 즉 자신의 시에는 표현하지 않고 침묵한 내용을 전고를 사용하여 대변하게 한 것이다.

주종의 관계에서 薛濤는 권력을 가진 주인에 의해 사용되는 존재이지만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강한 믿음과 자부심은 손상되지 않았다. 사회적 하층 계급의 妓女의 신분으로서 薛濤는 자신의 효용적 가치뿐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강한 자긍심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희고 깨끗하며 등글고 밝아 안팎이 투명하니, 맑은 빛은 수정궁을 비추는 듯하네(皎潔圓明內外通, 清光似照水晶宮). 「珠離掌」

우거진 수풀에 너댓 줄기를 새로 심으니, 늘 굳센 마디는 가을 서리도 감당하네(蒼鬱新栽四五行, 常將勁節負秋霜). 「竹離亭」

황금을 부어 만든 거울을 새로 여니, 막 떠오른 보름달이 그 위를 배회하네(鑄瀉黃金鏡始開, 初生三五月徘徊). 「鏡離臺」

‘고결하게 빛나는 투명함’과 ‘가을 서리를 버터내는 강건함’, ‘황금으로 주조한 고귀함’과 같은 속성은 효용에 앞서는 薛濤 자신의 근본적 존재적 가치이다. ‘皎潔’은 무결한 자아의 순수성에 대한 확신이며 ‘勁節’은 선비와 같은 절개에 대한 자부심이다. 하늘의 달을 비출 정도로 맑은 거울 역시 그녀의 고귀한 인품과 無私한 깨끗한 마음을 은유하는 것이다. 구슬과 대나무, 황금 거울은 위에 예시한 재능과 효용성과는 조금 다른 완상의 대상으로서의 심미적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는 사물이다. 중국시가 속에서 ‘거울 [鏡]’은 남녀 간의 이별을 상징하는 ‘分鏡’을 의미하거나 李白의 「將進酒」의 시구 ‘높은 당 거울 속 슬픈 백발(高堂明鏡悲白髮)’ 처럼 내면의 성찰로 이끄는 매개체가 된다. 남성에게 거울은 공업을 이루지 못하고 노쇠해진 자신을 비추는 도구로, 여성에게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물어가는 자신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데 薛濤는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는 존재가 되지 않고 황금으로 주조되어 하늘 위의 달까지 비추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자신의 순결한 성정과 명징한 현실 인식을 형상화하였다. 규방의 여성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전형성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가 고귀한 거울로 분하

는 독창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薛濤가 무슨 이유로 벌을 받게 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앞서 예시한 『鑿戒錄』의 「蜀才婦」이다. 『鑿戒錄』은 後蜀 사람 何光遠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唐·五대의 일화를 기록한 것으로 그 중 蜀 지역의 일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기이한 이야기나 향간의 소문 또는 해학적인 詩文 등을 수록하고 있지만 薛濤와 같은 蜀 지역 시인들의 일화가 일부 수록되어 있어 그들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薛濤가 변경지역으로 쫓겨난 이유가 외부 인사들과의 지나친 어울림과 뇌물수수, 상납 등의 문제였다는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후인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참고 자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향간의 소문보다는 薛濤가 지은 「十離詩」의 분석을 통하여 그 이유를 추정하는 것이 실제에 다가갈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十離詩」의 轉·結에 해당하는 3-4구는 ‘죄의 고백-죄에 따른 벌의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유형화하면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교만·실수로 인하여 주인에게 누가 됨: 「犬離主」·「筆離手」·「馬離廐」·「燕離巢」·「魚離池」·「鷹離鞵」·「竹離亭」
- ②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 「鸚鵡離籠」·「珠離掌」·「鏡離臺」

이중 「鷹離鞵」·「竹離亭」에서는 비범한 薛濤의 자아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매[鷹]’는 사냥을 위하여 길들여 기르는 맹금류 중 하나로 매사냥은 중국 북방 지역에서 즐기던 사냥으로 주로 오락의 목적으로 당대에 유행하였다. 唐詩 속에는 소위 ‘放鷹’이라고 하는 매사냥의 장면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있다. 하늘 위를 비상하여 작은 들짐승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아오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매의 이미지는 종종 영웅적인 장수의 조력자나 혹은 용맹한 신하의 은유로 사용되기도 한다. 杜甫의 「王兵馬使二角鷹」이나 백거이의 「放鷹」, 劉禹錫의 「白鷹」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매사냥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唐詩에서 매[鷹]는 용맹한 사냥꾼으로서의 강렬한 이미지로 심미적 쾌감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맹금으로서의 야성을 버리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충성심이다.

- ① 토시 위 날카로운 발톱과 열두 개의 깃, 장군의 날래고 용감함이 그와 대적할 만 하다네(韝上鋒棱十二翮, 將軍勇銳與之敵), (杜甫, 「王兵馬使二角鷹」)²⁰⁾
- ② 배부르게도 해서도 아니 되고 굶주리게 해도 아니 되네. 굶주리면 힘이 달리고, 배부르면 사람을 배신하고 날아가 버린다네. …… 황제께서 영웅을 부리시는, 그 방법 또한 이와 같다네(不可使長飽, 不可使長饑. 饑則力不足, 飽則背人飛. …… 聖明馭英雄, 其術亦如斯). (白居易, 「放鷹」)

「放鷹」에서는 군주가 영웅을 부리는 방법을 응사가 매를 길들이는 방법에 비유한다. 薛濤의 「鷹離韝」의 3-4구의 “함부로 청운 밖으로 달아나 군왕의 팔뚝 위에 앉지 못하게 되었네(無端竄向青雲外, 不得君王臂上擎).”는 “사람을 배신하고 날아감(背人飛)”처럼 자신이 韝의 통제를 벗어나 背恩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竹離亭」에서도 대나무의 곧고 단단한 속성이 통제에서 벗어나 저지른 죄를 “봄 죽순이 담장을 뚫어 깨뜨리니, 그늘을 드리우며 옥당을 뒤덮을 수 없게 되었네(爲緣春筍鑽牆破, 不得垂陰覆玉堂).”로 은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의 평원 위 토끼를 잡아채는 날카로운 발톱과 대나무의 가을 서리도 버터내는 단단한 줄기는 ‘囊中之錐’와 같은 탁월한 재능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것은 쉽사리 길들지 않는 속성이지만 그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이자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용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 속성이 주인의 팔뚝에 두른 토시와 옥당의 담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은유된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은 박탈되고 만다. 매와 대나무는 본디 그 통제의 공간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 그들의 공간 속으로 들어와 통제 속에 살게 되었다. 통제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타고난 본능과 재주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이를 죄로 여기고 자신의 공간으로부터 쫓아내는 벌을 내린다. 「十離詩」의 韝를 은유하는 공간은 이처럼 자아를 개발하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자아를 억압하는 공간이다. 薛濤의 자아는 이 공간 속에

20) “角鷹은 매의 별칭이다. 정수리에 뿔모양의 털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鷹의 別名. 其頭頂有毛角, 故稱.)”,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纂,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6490쪽.

머물기를 원하면서도 한편 이 공간을 깨뜨리고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품고 있다. 薛濤는 분명한 자아 정체감과 효능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껏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비애를 은유 구조 속에 전략적으로 숨겨놓았다.

薛濤는 과거 韋臯에게 총애를 받았던 營妓의 처지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주인이 기르는 개와 제비·물고기·구슬·거울 등은 효용의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과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개는 향기로운 털과 깨끗한 발로 평소 주인의 사랑을 받았으며, 제비는 지저귀므로 주인의 사랑을 받았다.

出入朱門未忍拋, 붉은 문 드나들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主人常愛語交交. 주인은 늘 나의 지저귀음을 사랑해 주셨네.
銜泥穢汚珊瑚枕, 진흙을 물어오다 산호 베개를 더럽혔으니
不得梁間更壘巢. 들보 사이에 다시는 둥지 틀지 못하리라.

제비는 앵무와 마찬가지로 薛濤의 언변과 시재의 측면을 부각한 은유로 그녀의 잘못된 둥지를 짓기 위해 물고 온 진흙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주인집의 대들보 사이에 진흙으로 둥지를 짓고 지저귀는 제비는 주인에게 있어 한없이 나약하고 사소한 존재에 불과하다. 제비 은유는 薛濤가 저지른 죄의 성격과 경중 역시 제비의 습성과 본능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즉 생존의 본능에 따르다 의도치 않게 범하게 된 작은 죄로 薛濤의 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약자로서의 薛濤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은유인 것이다.

Ⅳ. 文士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환경적 요인

1. 劍南西川藩鎮의 문화적 환경

陶慕寧의 통계에 따르면 『全唐詩』 속에는 이천여 수의 기녀와 관련된 시가 있으며 21명의 기녀가 지은 13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²¹⁾ 이

중 80여 수가 薛濤 한 사람의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薛濤는 500여 수의 작품을 남겼으며 이 중 16%가 『全唐詩』에 수록될 수 있었다. 이것은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이 바탕이 된 열정과 창작욕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薛濤의 시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薛濤가 악적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시짓기를 시작한 劍南西川藩鎮가 창작자로서의 薛濤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앞서 서술한 『全唐詩·薛濤傳』의 “열여섯 살에 악적에 들어갔다(十六歲入樂籍)”는 기록에 등장하는 ‘樂籍’이란 원래 禮部 教坊司에 예속된 관가의 妓院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中·晚唐 시기에는 지방 정부 및 藩鎮에서 樂妓와 음악을 즐기는 문화가 성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번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던 음악 전담 조직이 樂營이다.²²⁾ 樂營은 곧 樂籍 체계 중 지방 정부 및 軍鎮에 소속된 음악기구의 일종이었으며 이곳에 소속된 기녀들을 營妓라고 불렀다.²³⁾ 薛濤는 劍南西川藩鎮에 설치된 樂營 소속 營妓였으며 그녀의 업무는 손님을 접대하거나 연회에서 시를 짓고 주령을 이끄는 것으로 이들을 樂妓라 불렀다. 樂營은 소속 지방 정부나 藩鎮의 관리를 받았으며 樂籍에 소속된 기녀들에 대한 상벌의 권한 또한 藩鎮의 관리와 절도사에게 있었다.

薛濤 연구자들은 薛濤가 성년례를 올린 직후인 16세에 악적에 이름을 올

21) 陶慕寧, 『青樓文學與中國文化』, 北京, 東方出版社, 1993, 39쪽.

22) 『唐會要』 34卷에 기록된 寶曆 2년(826) 9월 京兆府가 올린 상소의 “신이 본 바로는 모든 道의 方鎮과 그 아래 州·縣의 軍鎮에 이르기까지 모두 음악 기구를 설치하여 오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伏見諸道方鎮下至州縣軍鎮, 皆置音樂, 以爲歡娛).”에 따르면 당시 樂營과 樂妓는 모든 지방 관부와 州縣에 주둔시킨 軍鎮에 樂營이 있었고 소속 樂妓들이 오락을 담당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唐會要』의 이 기록은 당대 ‘樂營’의 번성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기록이다. 안사의 난 이후 지방 번진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중앙의 관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조정의 음악이 지방 정부로 확대되고 민간에까지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23) 郭威는 唐代 營妓는 樂籍의 관리 하에 군대에 예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樂營은 營妓들이 거처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연주를 위한 음악을 만들고 소속 營妓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郭威, 「唐代樂營與營妓芻論」, 『藝術探索』, 第30卷 第5期, 2016, 113쪽.

렸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周禮』의 성년례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全唐詩·薛濤傳』에는 그녀가 8~9세부터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하였는데 그녀가 직업적인 예인이 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를 짓는 훈련을 받은 것은 樂籍에 소속된 이후일 것이다.

당시 劍南西川藩鎮은 중앙정치로 진출하고자 하는 문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었다. 戴偉華의 『唐方鎮文職僚佐考』의 통계에 따르면 唐代에 막부에 몸을 담았던 시인들이 고증된 것만으로도 25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²⁴⁾ 그 중 劍南西川鎮에서 복무하였던 문인들은 254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번진 중 가장 많았다.²⁵⁾ 劍南西川鎮은 蜀의 중심인 成都에 있었으며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였다.²⁶⁾ 특히 玄宗이 이 지역까지 피난을 와야 했던 安史의 亂을 겪은 후 조정에서는 劍南西川鎮의 인사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조정의 중신이나 황실의 친족들을 파견하여 중앙과 긴밀하게 연락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憲宗 元和 元年부터 僖宗 乾符 六年사이 劍南 三川(東川·西川·山南西道)을 역임했던 절도사 93명 중 40명이 재상이었거나 재상이 되었고 “宰相回翔之地”라는 말도 생겨났다.²⁷⁾²⁸⁾ 당시 절도사 韋臯는 武官 출신으로 일개 막료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제후로까지 봉해진 인물로 당시 관직을 꿈꾸는 문인들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것이다.²⁹⁾ 게다가

24) 戴偉華, 『唐方鎮文職僚佐考』, 廣西師範大學校出版社, 2007, 458쪽.

25) 戴偉華, 위의 책, 2007, 363쪽.

26) 唐代 두 황제 玄宗과 僖宗이 난을 피해 조정에서 蜀으로 피난왔다는 것은 이곳이 서남북 변경지역 밖의 이민족들을 방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내란이 일어날 당시 황제가 몸을 피할 수 있는 후방 기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李敬珣, 『四川通史』, 四川大學出版社, 1993, 59쪽. 張仲裁, 「簡論唐代西川幕府興盛之由」,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科學版) 第 214期, 2009, 289쪽 재인용.

28) “재상이 돌아 날아가는 곳(宰相回翔之地)”은 『資治通鑑』 卷237, 唐憲宗元和 二年十月條의 “나 고승문은 하사의 일개 병졸로 요행히 공을 세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소. 서천은 재상이 선화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함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래이니 어찌 감히 스스로 편안하겠소(崇文, 河朔一卒, 幸有功, 致位至此. 西川乃宰相回翔之地, 崇文叨居日久, 豈敢自安!)” 중에 나오는 말이다. 高崇文은 韋臯 뒤를 이어 절도사에 오른 劉闢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일년여간 서천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군졸 출신으로 문자를 몰라 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29) 『舊唐書』, 卷140, 列傳第90, 韋臯의 기록을 보면 그는 鳳翔節度使 張鎰의 幕

그는 인재를 등용하고 부하에게 물질적으로 후하게 대접해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文士들이 그의 막부로 몰렸다.³⁰⁾

陳樂保·楊倩麗의 「宰相回翔:中晚唐的西川文官政治」에 따르면 安史의 난 이후 조정에서는 西川節度使에 武人 출신의 관리를 임명했던 것이 8세기 이후 西川節度使의 군사력이 비대해져 이후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憲宗은 韋臯 이후에는 武元衡과 같은 文官을 西川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中晚唐 시기 西川은 문관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 상당수가 宰相에 임명되었다.³¹⁾ 武元衡은 進士 출신의 文官으로 德宗은 그를 ‘원형은 참으로 재상의 그릇이다(元衡真宰相器也)’라고 할 만큼 신임을 받았다.³²⁾ 元和 2년(807)에 憲宗은 그를 門下侍郎·平章事·成都尹에 임명하고 劍南西川節度使로 파견하였다. 그는 시에도 조예가 깊어 『武元衡集』 10권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全唐詩』에 그의 시 191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특히 오언시를 즐겨 관현악기에 가사를 입혀 연주하기를 즐겼다고 한다.³³⁾ 朱德慈는 그가 특히 薛濤의 ‘詩才’를 귀하게 여겨 ‘校書’의 직함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³⁴⁾ 薛濤의 작품 중에 「上川主武元衡相國二首」³⁵⁾·「送盧員

府에 있다가 建中 4년(783) 朱泚의 난을 진압한 공을 세워 德宗에게 左金吾大將軍 직을 받았다. 그 후 張延賞을 뒤이어 劍南西川節度使로 부임하였는데 부임 후에도 吐藩을 소탕하고 南詔를 제압하는 등 거듭 공훈을 세워 檢校太尉와 中書令까지 겸하게 되었고 후에는 南康郡王으로 봉해지는 등 武官 출신의 幕僚에서 출발하여 제후로 봉해지는 출세 가도를 달렸다. 歐陽修, 『新唐書』 권 158, 列傳第 83.

- 30) 『新唐書』 권158, 列傳第 83, “善拊士, 至雖昏嫁皆厚資之, 婿給錦衣, 女給銀塗衣, 賜各萬錢, 死喪者稱是.”
- 31) 陳樂保·楊倩麗은 高崇文이 말했다고하는 “西川乃宰相回翔之地”는 실제로 그가 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高崇文의 후임으로 부임한 武元衡 이후의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陳樂保·楊倩麗, 「宰相回翔:中晚唐的西川文官政治」, 『唐史論叢』, 2017年1期, 2017, 106~109쪽.
- 32) 『舊唐書』, 卷158, 列傳 第108.
- 33) “元衡工五言詩, 好事者傳之, 往往被於管絃.”, 『舊唐書』, 卷158, 列傳 第108.
- 34) 朱德慈는 「薛濤“校書”銜考」에서 807년 부임한 武元衡이 薛濤를 樂籍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고 그녀에게 校書 직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朱德慈, 「薛濤“校書”銜考」, 『運城高專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第15卷 第3期 33쪽. 薛濤가 실제 ‘校書’의 직함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

外」³⁶·「續嘉陵驛詩獻武相國」·「罰赴邊上武相公二首」³⁷)는 武元衡과 관련된 시들이다. 武元衡이 서천 절도사로 부임해 온 807년, 27세의 薛濤는 그를 환영하는 「嘉陵驛詩를 이어 무상국께 바침(續嘉陵驛詩獻武相國)」을 지었다.³⁸ 「嘉陵驛詩」는 武元衡이 西川 번진으로 부임해 오는 길에 지은 시인데 薛濤가 이에 응하여 환영의 뜻을 담은 것이다.

薛濤의 활동무대는 문학적 소양을 갖춘 당시 문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었고 薛濤는 이들과 시로 교류할 수 있었다. 이것은 薛濤의 자아가 형성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녀는 자신의 타고난 자질과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을 직업인으로서의 樂妓로 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고한 자아 인식과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녀의 작품은 주연의 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는 설과 교서직을 주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설 등 이론이 분분하다. 薛濤가 校書직을 받았다는 주장하는 측이 확증으로 제시하는 것은 元稹와 긴밀한 사이였던 王建이 薛濤에게 지어 보낸 「축의 薛濤 교서게 부침(寄蜀中 薛濤校書)」라는 시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이 호칭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薛濤를 칭하는 별명이었을 것으로 본다.

- 35) 808년 봄 연회에서 지은 시로 보인다. 武元衡을 수장으로 한 서천 막부의 위용을 묘사하고 봄밤 등각에서 빈객을 접대하는 연회의 모습을 묘사한 시다.
- 36) 장안으로 떠나는 盧員外를 송별하는 시인데 내용 중 薛濤는 武元衡에게 안부를 전해주기를 부탁하는 구절이 있다.
- 37) 薛濤는 모종의 사건으로 다시 번진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자 이 시를 지어 武元衡에게 석방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張篷舟는 薛濤가 806년 劉關에 의해 별로 변경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후 武元衡이 서천 절도사로 부임에 오자 사면을 청하기 위하여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張篷舟, 앞의 책, 2012, 78쪽.
- 38) 앞서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薛濤의 출생을 781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薛濤詩箋』에서 張篷舟는 薛濤가 20세에 韋臯에게 용서를 받고 成都로 다시 돌아온 직후 樂籍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았으나 『鑿戒錄』·『唐才子傳』·『全唐詩』 중에는 薛濤가 언제 樂籍에서 나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 朱德慈는 「元薛姻緣脞證」에서 薛濤의 출생을 777년~780년 사이로 추정하였으며 「薛濤“校書”銜考」에서 807년 부임한 武元衡이 薛濤를 樂籍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고 그녀에게 校書 직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朱德慈, 「元薛姻緣脞證」, 『成都大學校學報』(社科版), 1989년 第2期. 朱德慈, 「薛濤“校書”銜考」, 『運城高專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第15卷 第3期, 37쪽.

2. 文士로서의 정체성

「十離詩」 속에 나타난 20대 초반의 薛濤의 자아 인식은 그녀의 ‘文士’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薛濤의 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劍南西川藩鎮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과의 酬贈詩 속에서 薛濤는 종종 자신을 그들과 동등한 선비의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薛濤의 「이교서께 답함(酬李校書)」에서 薛濤는 자신의 처지를 漢代 劉楨으로 비유한다.³⁹⁾

自顧漳濱多病後, 이 몸은 병이 많아 장수가에서 요양이나 하려하니,
空瞻逸翮舞青雲. 하릴없이 청운 위 춤추는 그대 날갯짓 우러러보리라.

‘漳濱’은 劉楨이 曹丕에게 보내는 「贈五官中郎將」 5수 중 “허약한 몸은 고질병이 깊어져, 漳水 가에 몸을 숨기고 있네(餘嬰沈痼疾, 竄身清漳濱)”의 시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漳濱’은 이 시에서 유래하여 이후 “병을 앓고 있는 곳”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는데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선비의 은신처, 혹은 그런 상태를 은유한다.⁴⁰⁾ 薛濤는 자신의 영락한 처지를 劉楨에 빗대면서 출세 가도에 올라 재능을 펼치는 이교서와 대비시킨 것이다. ‘漳濱’의

39) 辛島驍의 『魚玄機·薛濤』에서는 唐 朱慶餘의 「送李餘及第歸蜀」시를 근거로 ‘李校書’는 李餘를 가리킨다고 주하였다. 李餘는 成都 사람으로 10년 동안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長慶 3년(823)에 급제하였다고 한다.(張篷舟, 앞의 책, 2012, 41쪽 참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薛濤는 43세로 樂籍에서 벗어나 浣花溪에서 머문지 오래였다. 832년 10월에 杜元穎가 劍南西川節度使로 부임해 왔는데 그전까지는 段文昌이 절도사로 있었다. 薛濤의 시 중에는 段文昌에게 보내는 「단상국의 무담사 유람을 병으로 따라갈 수 없어 시를 지어 부침(段相國游武担寺, 病不能從題寄)」이라는 시가 있다. 820년 段文昌은宰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821년 서천절도사로 임명된 때에 이미 ‘段相國’이라는 호칭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가 821~823년 사이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823년 봄 즈음 薛濤가 병으로 浣花溪에서 요양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찾는 사람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지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舊唐書』, 卷167, 列傳第117, 「段文昌傳」.

40) 『全唐詩』 중에는 玄宗의 “昔見漳濱臥, 言將人事違.”(「句」, 『全唐詩』 3卷)를 비롯하여 杜甫의 「哭李尚書」· 李商隱의 「梓州罷吟寄同舍」 등 약 29수의 시에서 ‘漳濱’ 전고를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薛濤와 같은 여성 작가의 작품이나 여성 화자의 작품은 찾아볼 수 없다.

전고 속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시킴으로써 두 구는 ‘실의한 선비’와 ‘득의한 선비’의 의미 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이 시 속 薛濤는 ‘실의한 선비’의 이미지와 포개진다. 행간에는 薛濤 내면의 펼치지 못하는 꿈과 비애, 부러움의 정서도 함께 함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애는 중국시가 속 ‘失戀’의 비애를 노래하는 정형화된 여성의 서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아 정체성의 차이가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감성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劍南西川鎮으로 부임해 오는 張元夫에게 보내는 「장원부에게(寄張元夫)」라는 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借問人間愁寂意, 묻노니 인간 세상 수심과 적막이란 무엇인가,
白牙弦絕已無聲. 백아의 거문고 줄은 끊어져 아무 소리 나지 않네.

여기서 張元夫는 元稹의 「촉으로 보냄(貽蜀)」 5수 중 네 번째 시 「張校書元夫」에도 등장한다. 이 시의 첫 구 “서천의 장교서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未面西川張校書)”를 보면 장원부라는 인물이 西川 막부의 校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元稹의 시가 元和 9년(814)에 지은 것이므로 張元夫가 西川 막부에 있었던 것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⁴¹⁾ 이때 薛濤는 34세로 당시 은퇴한 營妓들처럼 혼인을 하거나 유력가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고 浣花溪에 거주하며 문인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다. 이 시에서 薛濤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이 아니라 知己를 잃어버린 白牙로 그리고 있다. 그녀가 느끼는 ‘수심과 적막함’이란 자신을 알아줄 知己의 상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薛濤의 시는 張元夫를 비롯하여 元稹과 白居易·劉禹錫·張籍·杜牧·張祜 등의 유명 문인들과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주류 문인들의 시에 대한 관점과 심미적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 이는 薛濤가 스스로를 주체적인 창작자로 인식하고 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41) 『薛濤詩箋』에 따르면 張元夫는 大和 초에는 兵部郎中을 지냈으며 中書舍人에도 올랐다가 汝州刺史로 부임해 갔다고 한다. 당시 문장이 뛰어나 세간에 명성이 있었다고 한다. 張蓬舟, 위의 책, 2012, 60쪽.

V. 결론

「十離詩」는 韋臯에 의해 변방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薛濤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으므로 이 시는 전략적으로 기획되어 지어졌다. 薛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의 은유 구조를 조직하였다. 韋臯와 薛濤 두 사람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 관계의 양단에 있었다. 薛濤는 이 권력 관계의 개념을 하나의 공간 은유로 표현하였다. 즉 [공간=지배자(韋臯)]-[공간에 속한 개체=피지배자(薛濤)]의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형상화할 수 있는 열 종류의 동물과 식물, 사물을 선택하였다. 설도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효용, 고유한 존재 가치 등을 선명하게 인식하여 이를 형상화하였다. 형상의 창조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능과 효용을 공통적 속성으로 한 보조관념들을 가져와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十離詩」 창작 과정은 곧 설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과 자아의 형상화 과정이기도 하였으므로 당연히 여기에는 현실과 자아에 대한 설도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설도의 자아 인식이란 사회 최하층의 妓女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언어적 재능과 시 짓기의 재능에 대한 자부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 속에는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비애의 감정 역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 인식은 이후 文士로서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었다. 설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에는 劍南西川藩鎮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설도는 西川幕府에서 樂妓로서 필요한 교양과 시를 학습하였으며 당시 유력인사나 문인들과 시로 교류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발전시켜 나갔다. 최소한 시의 세계에서는 설도는 그들과 동등하게 교류하였다. 은퇴 후에도 薛濤는 그녀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문인들과 시로 교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文士로서의 자아 인식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薛濤의 시는 당시 문단의 시에 대한 관념과 심미적 지향에 부합하였기에 읽히고 전해질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中華書局編輯部 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6.
- 王士禎, 『唐人萬首絕句選』, 『欽定四庫全書』, 集部.
- 蕭統 編, 李善 注, 『文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司馬光, 『資治通鑒』 第六冊, 『欽定四庫全書』, 史部 .
- 歐陽修, 『新唐書』, 『欽定四庫全書』, 史部.
- 劉昫, 『舊唐書』, 『欽定四庫全書』, 史部.
- 王溥, 『唐會要』, 『欽定四庫全書』, 史部.
- 何光遠, 『鑒戒錄』, 『欽定四庫全書』, 子部.
- 辛文房, 『唐才子傳』, 『欽定四庫全書』, 史部.
- 최진아 譯, 《북리지·교방기》, 서울, 소명출판, 2013.
- 張篷舟 箋, 張正則·季國平·張雅 靖箋, 《薛濤詩箋》(修訂版), 人民文學出版社, 2012.
- 陶慕寧, 『青樓文學與中國文化』, 東方出版社, 1993.
-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화연구』 2, 한국여성문화학회, 1999.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張仲裁, 「簡論唐代西川幕府興盛之由」,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科學版) 第214期, 2009.
- 陳樂保楊倩麗, 「宰相回翔:中晚唐的西川文官政治」, 『唐史論叢』, 2017年 第1期, 2017.
- 戴偉華, 「唐方鎮文職僚佐考」, 桂林: 廣西師範大學校出版社, 2007.
- 郭威, 「唐代樂營與營妓芻論」, 『藝術探索』第30卷 第5期, 2016.
- 郭威, 「樂籍體系的創承與傳播機制」, 『音樂研究』, 2011, 第5期, 2011.
- 朱德慈, 「元薛姻緣胥證」, 『成都大學校學報』(社科版), 1989, 第2期.
- 朱德慈, 「薛濤“校書”銜考」, 『運城高專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第15卷 第3期.

❖ ABSTRACT

Self-Awareness and Strategies Shown in
「Shi li shi」 by Xue Tao

Park, Hyekyung
Dankook University

This thesis started from a curiosity about how, out of the female poets in the Tang Dynasty, Xue Tao could leave the greatest amount of poems.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he self-images shown in Xue Tao's work were analysed, after judging that her establishment of self-awareness and self-identity as a woman of letters might be the driving force of her creative endeavour. In research scope, this study mainly targeted 「Shi li shi」 out of her works within 4-5 years after she started her social life as a singing gisaeng. 「Shi li shi」 shows a total of ten kinds of images that metaphorically express Xue Tao herself. Xue Tao proved her innocence and defended herself to get a pardon, which was the motivation and purpose for creating this poem. For this, she aimed to move the opponents' mind by highlighting her value, and also revealing her clear perception of reality, in which she was in the subordinate position in the power relation between master and servant. For this, Xue Tao created the self-images based on her self-awareness, and then strategically organized the rela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of punishment, and the means and ends of the case, into a metaphorical structure. In this way, the establishment of self-awareness and identity of Xue Tao was greatly influenced by Jiannanxichuanzhen, to which she belonged. The civil official-centered members of Jiannanxichuanzhen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ivil administration' had influences on the establishment of self-awareness and identity of Xue Tao as a woman of letters.

200 비교문화연구 제57집(2019.12)

Key Words : Xue Tao, 「Shi li shi」, self-Awareness, self-images, metaphorical structure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